

“없어서 못 팔아요” 반도체 대란에 지역 제조업체 ‘훈풍’

기계설비 수요 급증 전국서 발길...중고값도 20% 올라 하남산단 공장 가동률·매출액 급등세...취업자도 늘어

“예전엔 수요가 없어 장비 보관 창고가 절반 가량 비어있었는데, 요즘은 전국에서 되는 대로 가져와도 급세 팔려나갑니다.”

17일 오후에 찾은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의 기계설비 유통업체 창고(3305㎡)는 100여대의 공작기계설비로 가득했다.

중류도 수 십가지로, 공작기계인 버티컬머시닝센터와 금형 프레스머신, 범용 밀링선반 등으로 창고에 가득 들어차 있었다.

이 창고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마산, 울산 등 중 고 기계설비를 찾는 전국 제조업체 공장 관계자들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는 곳이다.

업체대표 A씨는 “폐업하는 공장 등에서 중 고 기계설비를 가져와 공급하고 있다”면서 “지금 창고가 꽉 차 있는 듯 보여도 금방 팔려나가기 때문에 미리 채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A씨는 “코로나 여파로 한때 힘들긴 했지만 최근 반도체 대란 속에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일거리가 늘면서 중 고 기계설비 수요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반도체가 필요한 백색가전 및 자동차의 광주지역 완제품 제조·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들 부품 수급을 담당하는 하남산단지공단지 등 지역 산업단지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가전·자동차업체들 협력업체들의 주문량이 급증, 제품을 찍어내는 프레스머신과 공작기계인 밀링선반 등 제조업체에 필수적인 기계설비의 수요도 많아졌고 중고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범용기계설비인 밀링선반, 머시닝센터, 프레스머신 등의 경우 중고 가격이 최대 20%까지 올랐다. 삼성전자와 기아차, GGM(광주글로벌모터스) 등의 협력업체에 대한 부품 주문량 증가, 20% 가량 오른 신형 장비 가격, 신형 장비 수급에 걸리는 시간(3개월) 등으로 중고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업체 관계자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삼성전자 해외공장 생산 물량도 일부가 광주에서 만들어져 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7000만원 하던 중 고 기계설비가 1억원까지 뛰었다”고 말했다.

제조업 훈풍으로 광주지역 산업단지 내 생산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산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하남산단 입주업체들의 총 생산액은 13조1414억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잠정치라고는 하지만 지난 2020년 총 생산액인 10조7547억원에 견줘 19%(2조3967억원)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생산액 10조 5275억원도 뛰어넘었다.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0년 1016곳이던 하남산단 입주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1071개로 늘었다.

하남산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입주업체들의 여건이 그나마 회복되면서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기업 1차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17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한 중 고 기계설비 유통업체 창고. 내부에 밀링선반 등 중 고 기계설비들로 가득차 있다.

카카오 택시, 광주서 합법적으로 달린다

“조합 가맹사업 참여 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19개 법인 2심 승소

카카오 택시가 광주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됐다.

‘카카오 T블루’ 가맹에 참여한 광주 택시법인들이 가맹사업의 참여를 금지한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광주지역 19개 택시법인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택시조합이 카카오 T블루 가맹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택시조합은 지난 2020년 4월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카카오 T블루를 포함해 가맹사업에 조합원의 가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은 제명하는

안을 신선헌에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합의 카카오 T블루 서비스 등 가맹점 가입 금지 결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T블루 가맹법인 측은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택시사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오는 25일까지 조합원들과 상고 여부를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가맹사업 호출 서비스는 현재 ‘카카오 T블루’와 ‘우티’ 2개사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영철·김학산 이사장, 신협중앙회 이사 선출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과 김학산 목포 팔발신협 이사장이 신협중앙회 이사로 선출됐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6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제49차 정기대의원회’에서 열린 이사회 임원선거에서 고영철·김학산 이사장이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2월까지 4년이다.

신협중앙회 이사회는 총 21명으로, 중앙회장과 선출직 이사 13명, 전문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출직 이사에는 전국 단위신협 이사장 33명이 출마한 가운데 득표순으로 13명이 새로 뽑혔다.

고영철 이사장은 1993년 광주문화신협 발기인부터 시작해 실무책임자, 상임이사를 거쳐 현재 상임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영철 이사

김학산 이사

김학산 이사장은 지난 44년 동안 팔발신협에서 직원부터 실무책임자를 거쳐 현재 2연임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학등록금 납부하고 장학금 받으세요

광주은행 내달까지

광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대학등록금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2022년 1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 및 모바일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대학(원)생은 대상으로 총 153명에게 장학금과 문화상품권 등을 준다.

1등(1명)에는 장학금 200만원, 2등(2명)은 100만원을 주며 행운상(50명)에는 모바일문화상품권(3만원), 참여상(100명)에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상품권 2매를 준다.

추첨 결과는 4월 중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달라진 캠퍼스 생활 등 힘든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을 응원하고, 미래재원인 지역 대학생들의 꿈을 격려하고자 준비한 이번 2022년 1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눈에 보는 수출지원가이드’ 배포

광주·전남중기청, 기획·마케팅·이행 등 210개 사업 수록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전남지역 30개 수출유관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210개의 수출지원사업을 모두 수록한 ‘한눈에 보는 수출지원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출지원가이드북은 기획과 마케팅, 이행 등 3단계로 나눠 사업별 일정을 수록해 기업들의 효율적인 정보탐색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 지원정책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표지에 QR코드를 기재해 누구나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각 기관의 웹사이트와 사업별 담당부서의 연락처도 수록했다.

이번엔 광주전남중기청 수출팀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출지원



사업 설명회로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중소기업에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 책자를 발간했다”며 “중소기업 수출업무 담당자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출지원가이드 책자를 원하는 기업은 지역 내 수출유관기관을 방문해 받아볼 수 있으며, QR코드로 연결된 광주전남지방중기청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고향 살리고 기부하고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가 17일 목포역 광장에서 도민들에게 잡곡 300개 꾸러미를 나눠주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일정액을 농특산물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남농협 제공>

‘스타트업 성장지원’ 75억 신용보증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44.09 (+14.41)
↓ 코스닥	874.22 (-3.93)
↓ 금리(국고채 3년)	2.295 (-0.030)
↓ 환율(USD)	1197.10 (-0.50)

전남신보-우리은행 업무협약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75억원 규모 신용보증에 나선다.

전남신보는 우리은행과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22 우리은행 특별출연 스타트업 스케일-업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전남신보에 5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총 75억원 보증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전남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력 3년 초과 사업자도 전남신보 또는 우리은행의 추천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이다. 신용점수에 관계 없이 정부 및 전남도 보증료(無)보증료로 우대 적용된다.

한편 전남신보는 재단 방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비대면 보증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백희준 기자 bhj@